

SKT, 레전드 아티스트 공연

‘3D 영상 기록’으로 남긴다

**-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 가동… 송창식, 정훈희 등 공연 볼류매트릭으로 제작**

**- <함춘호쇼> 6일 20시 이프랜드에서 첫 방송… 함춘호, 송창식 등 3D 입체 공연으로 선봬**

**-“ICT 기술을 활용해 K팝의 뿌리 생생하게 기록… 추후 콘텐츠 지속 확대할 것”**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2022. 10. 6]**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함춘호, 송창식 등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왔던 레전드 가수들의 공연을 볼류매트릭\* 기술로 기록하는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100대가 넘는 카메라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촬영해 실사 기반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의 뿌리와 배경이 된 원로 가수들의 공연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영상 기록에 볼류매트릭 기술을 활용해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2D가 아닌 360도 입체 영상으로 기록, 더욱 실감나는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SKT는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의 게스트로 한국 최고의 기타 명인 함춘호를 비롯해 송창식, 정훈희, 장필순, 여행스케치 등의 공연 영상을 볼류매트릭으로 기록했으며, 추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더 많은 레전드들의 공연을 기록할 계획이다.

SKT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6일 20시에 첫 선을 보이는 <함춘호쇼>를 통해 ‘레전드 아티스트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로 제작된 콘텐츠를 12월 29일까지 격주로 총 7회에 걸쳐 선보인다.

<함춘호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진행되는 메타버스 뮤직 토크쇼로 볼류매트릭 공연과 라이브 공연, 토크쇼로 구성된다.

<함춘호쇼> 1회에는 최근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안개를 부르며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송창식, 정훈희가 출연해 공연은 물론, ‘헤어질 결심’ 촬영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달 20일에 열리는 2회에는 장필순, 11월 3일에 열리는 3회에는 정훈희, 김태화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다.

SKT는 이달 3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함춘호쇼>를 비롯해 <메타버스 Live 연극>, <아바타 노래자랑>, <디마버스 ‘메타춤선생’> 등 이프랜드 이용자들이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메타버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정규 편성해 제공하고 있다.

양맹석 SKT 메타버스CO 장은 “이번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로 문화의 힘을 한층 더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볼류매트릭 기술을 활용해 K팝의 뿌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더 많은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초실감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함춘호, 송창식 등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왔던 레전드 가수들의 공연을 볼류매트릭 기술로 기록하는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

**▶ 관련 문의: SKT PR실 혁신PR팀 이태훈 매니저 (02-6100-3368)**



**<끝>**